

大學 聲樂教育의 특징과 當面課題

鄭 福 珠

(梨花女大 聲樂科)

1. 韓國 聲樂教育의 特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의 音樂教育熱을 가지고 있으며 聲樂에 대한 愛情도 마찬가지이다. 1985년말 현재 30여 개 大學校 및 大學에서 聲樂科를 개설하고 있고, 또한 20여 개 大學校에서는 사범대학내에 音樂教育科를 설치하여 聲樂專攻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성악과의 주요 교육 내용은 전공 實技教育(레슨), 합창, 디션(이테리어, 독일어, 불어, 영어), 성악 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오페라 워크샵 등을 통해서 직접 연주를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재학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獨唱會, 定期演奏會, 오페라, 기타 음악회에 출연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무대 훈련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주 1회 열리는 음악회의 출연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악 교육을 다른 人文·自然系 大學의 교육과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다른 음악 교육에서의 마찬가지로 성악과에서도 성악에 관한 理論뿐만 아니라 實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들은 4년간 매주 1회의 교수·학생간의 개

인 實技指導를 통해서 연주가로서 요구되는 데크닉은 물론 樂曲의 해석 및 표현을 배우게 된다. 大學 聲樂教育의 목적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게 하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지만 목적 달성의 평가는 實技能力의 向上 여부에 달려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벌어지는 각종 콩쿠르에서의 평가 기준도 實技能力이 되고 있으며, 藝術人으로서의 完熟度 평가도 실기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으로서는 좋은 實技指導 教授를 자기 선생님이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대학교육의 성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社會進出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옛날의 徒弟制度에 못지 않은 師弟 관계를 갖게 되어,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의 大量生産(mass production)體制에 따른 師弟之間의 遠隔化 現象중에서도 音樂大學만은 긴밀한 교수·학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학생간의 1대1 교육은 이러한 長點에 못지 않게 制度的인 問題點들을 내포하게 된다. 많은 학생을 수용시키기 위한 施設不足은 물론 교수 1인당 擔當해야 될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된다.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韓國에서도 대부분의 사립 대학의 경우 音樂大學 교수들은 1주일에 최소한의 책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다른 대학의 기준 시간인 9시간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둘째로, 교수들의 승진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은 研究實績이 되는데 성악과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것이 獨唱會나 오페라 出演 등이 되겠다. 독창회나 오페라 출연의 준비는 論文을 작성하기 위한 研究나 實驗에 해당되지만 하나의 큰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音樂의 표현은 感情的이고 예민하여 演奏者는 가능한 한 다른 일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학생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자의 任務임에도 불구하고 레슨이나 강의에 불성실하기 쉽다. 더우기 성악의 경우는 聲帶가 樂器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는 本能이 발동하여 많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클래스 科目을 맡기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악과의 교과목 중에서 理論科目의 개설이 적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聲樂敎育은 외국에 비하면 外國語敎育이란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 聲樂이란 말로써 표현되는 藝術이므로 原作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표현하려면 歌詞의 뜻과 뉘앙스를 잘 알아야 한다. 성악과에서 다루어지는 음악은 西洋音樂이 주가 되어 있고, 특히 오페라나 藝術歌曲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그리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美國人도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習得速度나 말의 분위기가 과악에 있어서는 韓國人과 같은 東洋人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 등 악기를 다루는 音樂徒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外國語 敎育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더구나 先進國에서는 외국 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마저도 도저히 얻기 힘든 형편인 것이다. 이런 여건 때문에 韓國에서는 敎育이 꼭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과목과의 均衡이란 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 語學習得을 敎育 시간으로 대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특징은 비단 성악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분야에 적용되는 현상이나, 음악이란 演奏會나 發表會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나 청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음악당이나 강당 등이 音樂徒들에게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나 학생수에 비하여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의 文化施設이 대학생들의 연주회나 발표회를 수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여건은 대학생들에게 發表機會의 상실을 뜻함과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로써 음악이 人生의 幸福을 전해 주는 생활의 주변이 되지 않고 비싸고 낭비스러운 노력이란 이미지를 音樂徒들에게 심어 준다.

2. 學部 敎科目の 構成과 問題點

우리나라 성악과의 교과목 내용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전국 30여 개 聲樂科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梨花女大, 서울大, 延世大의 敎科目を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聲樂敎育은 이태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발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音樂大學은 美國式敎育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美國의 주요 대학들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표 1 참조).

1) 專攻敎育 學點의 不足

1970년대 중반부터 實驗大學 체제를 거치면서 卒業取得 學點이 현재의 140 학점으로 되어 實驗大學 단계를 거치기 전의 160 학점보다 20 학점이나 적게 되었다. 일반 교양 과목이 80 학점을 차지하고 있고 전공 과목은 60 학점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 학점 변경을 위시한 實驗大學 체제의 구상이 大學生들에게 폭 넓은 知識을 함양시킨다는 큰 전제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공 취득 학점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양 과목의 偏重은 專門化되어 가는 성

1)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聲樂敎育을 시작한 기관은 1925년에 창설된 梨花女子專門學校의 音樂科였으며, 1947년 聲樂科가 분리되어 독립 학과로 되었는데 梨花女子大學校는 美國式敎育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大學校이다.

〈표 1〉 聲樂科 學部課程 專攻科目 教科 比較

학교	美 國	韓 國		
	인디애나大	시 울 大	梨花女大	延世大
전공	전공실기(22) ¹⁾ 합창(0) ²⁾	전공실기(16) 합창(4)	전공실기(16) 합창(6)	전공실기(8) 합창(4)
	성악문헌 I, II (6)	예술가곡 I, II, III, IV (8)	성악문헌 I, II (4)	성악문헌 I, II (4) 불란서가곡 클래스 (2) 이태리가곡 클래스 (2) 독일가곡 클래스 (2)
	덕선 (5) 음악사 I, II (6)	덕선 (6) 음악사 및 문헌 I, II, III, IV (8)	덕선 (8) 서양음악사 I, II (6)	음악사 I, II (6)
	음악이론 (7)	화성법 및 건반화성 (4) 시창, 청음 (4)	화성악 (8) 청음, 시창 (4)	화성악 (6) 시창, 청음 (8)
	음악구조 및 문헌 (13)	대위법 (4) 음악분석 (4)	대위법 (4) 음악분석 (4)	대위법 (4) 악식론 (4)
전공선택	오페라 워크샵 I, II (6) 피아노 (8) 음악교육심리 (3) 졸업 연주 I, II (2)	연주 ⁴⁾ (4)	오페라 워크샵 I, II (2) 클래스 피아노 (4)	
	자유선택 (6)	클래스 피아노 (2) 중교가곡 I, II		클래스 피아노 (2) 음성학
전공선택	자유선택 ³⁾ (4)	한국가곡 오페라 클래스 I, II, III 오페라웃 I, II 가창연습 성악앙상블		덕선 (6) 리드릭 연기법 오페라 워크샵 I, II 오페라 앙상블 20세기 성악 음악 학습지도

1) () 안의 숫자는 學點數

2) 학점은 없으나 매학기 필수

3) 音樂科目 또는 非音樂科目에서 이수

4) 매주 열리는 연주에 4학기 참여

악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는 역행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大學 卒業者들의 대부분이 敎師, 演奏者, 大學院生 등 전문적인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專門敎育이 不足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적 學問的 體制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인디애나大 성악과의 경우 취득 학점 120 학점 중 교양 과목의 학점수는 32 학점이고 나머지 88 학점은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렇듯 부족한 전공 학점과 필요

한 전공 교육의 괴리를 학점 단위의 최소화란 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音樂大學에서는 학점 단위를 줄이든지 강의 시간 수와는 관계 없이 가능한 한 한 과목의 전공 학점을 최소 학점 단위를 부과하여 좀더 많은 전공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반 교양 과목 중 일반 선택 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음악 대학내에서 개설한 他學科 전공 과목이나 공통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學科間의 조정 부족으로 시간대의 중복이라든가 교수들의 과다한 수강

인원의 기피 등으로 학생들의 수강이 용이하지 못하다. 또한 타학과의 전공 과목은 성악과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아니거나 성악과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편성된 교과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대학에서는 성악과에서 必須專攻科目으로 보아야 될 오페라史, 聲樂技法, 오페라 앙상블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또 문헌에 관계되는 시간이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점 시간수가 적다.

전공 과목의 開設數가 적은 또 다른 이유는 성악 교수들의 理論 시간 기피 현상 때문이다. 비단 성악과뿐만 아니라 실기를 전공으로 하는 다른 과에서도 교수들이 專攻實技 이외의 다른 理論授業 강의 맡기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專任教授들이 한 강의 이상씩 理論科目을 맡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교수의 責任度가 강화되고 專攻實技를 받고 있는 몇몇 '자기 학생' 이외에 科 전체 학생들의 能力과 個性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學生指導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학생과 교수 사이의 바람직한 人間關係의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卒業演奏의 內實化

大學課程에서 실시하고 있는 卒業演奏의 內實化를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연주하여 학점 없이 合格, 不合格으로 처리되고 있다. 美國에서는 최소한 한번 또는 두 번의 獨唱會를 필수로 하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한번에 50분 정도의 獨唱會를 卒業演奏로 하게 함으로써 4년간 연마한 實技가 무대에서 實現되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동안 대학 신입생 수의 급증에 따라서 演奏施設의 부족, 教授들의 부담 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최소한 2人 音樂會 등의 과도기를 거쳐서라도 졸업 연주는 獨唱會로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3) 相對評價制度의 問題點

相對評價制度의 문제는 비단 성악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적의 결과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대적 비율에 의한 相對評價制度에서 목표의 성취 수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絶大評價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심이나 이로 인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사이의 人間關係의 왜곡, 소외 등은 학업 성적을 相對評價하는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專攻實技에 있어서 인정할 만한 수준에 올랐으나 상대평가로 낮은 학점을 받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불러 일으킨다. 정도가 심해지면 專攻을 포기하게끔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외국에 留學을 갈 경우나 전공과 관계되는 직장에 취직을 할 경우에도 학생들이 實技의 相對評價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學業을 위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理論科目 등 전체가 일시적으로 絶對評價로 전환하기 힘든 경우에는) 최소한 實技에 있어서는 빨리 絶對評價로 바뀌어야 되겠다.

3. 大學院 課程과 問題點

1) 大學院 入學試驗

大學院 音樂科의 입학 시험 과목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英語試驗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 시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英文으로 된 原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能力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專攻實技가 우수한 학생이 입학되지 않고 영어 능력은 우수하나 專攻實技가 부족한 학생이 입학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어, 실기 둘 다 중요하지만 實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 시험에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어 합격한 사람 중에서 實技成績順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하는 것이 옳바를 듯하다. 즉 實技 테스트에 통과된 1차 합격자에게 영어와 이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大學院生의 質을 향상시키는 方案일 것 같다.

2) 大學院 教科目的 構成과 問題點

大學院 과정에서는 專攻實技, 論文, 卒業演奏

〈표 2〉 大學院 聲樂專攻 教科課程 比較

美 國	韓 國			
인디애나大 (42)	서 울 大 ¹⁾ (28)	梨 花 女 大 ²⁾ (33)		
전공실기 (12)	필 수	필 수		
졸업 연주 I, II (2)			전공실기 (9)	
합창 ³⁾ (4)	전공실기 (6)	졸업 연주 (3)		
성악문헌 I, II (6)	졸업 연주 (1)	논문세미나 (3)		
현대 음악 문헌 (3)	석사논문연구 (4)	성악 문헌 (3)		
오페라 문헌 (3)	레퍼토리 구성법 (1)	음악학 개론 (3)		
교향악 문헌 (3)	선 택	민족음악학 (3)		
실내악 문헌 (3)		조성음악 분석론 (3)	조성음악 분석 (3)	
성악 교수법 (3)		바그너음악 연구	20세기음악 분석 (3)	
성악 교수법 세미나 (3)		베베른음악 연구	중 택	
오페라 워크샵 V, VI (6)		일본 음악 연구		음악해석론
또는 한 분야에서 6 학점 이수 (음악교육, 음악사 및 문헌, 이 론, 작곡, 지휘 등 각 과정의 승인 아래)		인도 음악 연구		낭만음악
		관련악법 연구		피아노 문헌
		합창 지휘법		실내악 문헌
		동양 음악 문헌 연구		음악미학
		민속악 연구		음악 분석론
		중동지역 음악 연구		민속악 연구
		음악이론사 연구		아악 연구
		센키주의 분석이론 연구		중세 및 르네상스 음악
		전위음악 연구	교향악 문헌	
		비조성음악 분석론	레퍼토리 구성법	
		음악미학 연구	관련악 기법	
		르네상스 음악사		
		베오토벤음악 연구		
		스트라빈스키음악 연구		
		바흐음악 연구		
	중국 음악 연구			
	20세기 음악사			
	음악기호학 연구			
	음악인류학 연구			
	한국 아악 연구			
	한국 음악 연구 (2)			

1) '86년도 1 학기와 2 학기에 音樂科에 개설된 科目, 개설 가능 공통 教科科目은 49 개에 이른다.

2) '86년도 1 학기와 2 학기에 音樂科에 개설된 科目, 개설 가능 과목은 26 개이다.

3) 합창은 대학기 필수로 하되 학점은 4 학점만 인정해 준다.

4) () 내는 학점수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6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學院에서 開設되고 있는 과목 중에서 성악 전공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목은 聲樂文獻과 레퍼토리 構成法 등 두 과목뿐이다. 나머지는 거의 音樂史나 音樂學, 音樂理論에 관계되는 것이다. 특히 大學院 課程에서는 성악과 관계되는 전문 지식을 교육시키는 과목을 성악과에서 개설하고 그 개설 시간수를 늘려야만 한다.

3) 碩士學位 論文의 廢止

大學院에서 석사 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선 卒業演奏 이외에 論文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論文提出義務는 文敎部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요구 사항이다. 論文制度는 理論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과정이 되겠지만 성악이나 피아노 등 演奏가 전공인 학생에게도 부과되는 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實技專攻 학생들이 博士課程이 아닌 碩士課程에서

깊이 있는 논문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다수의 논문은 論文을 위한 論文으로 형식화에 그치고 만다. 뿐만 아니라 論文指導나 審査委員의 선정에도 애로가 있으며 교수들에게도 실효가 적은 과중한 부담만 되고 있다. 論文提出制度를 廢止하는 대신 卒業演奏를 한번 더하게 하는 것이 敎育的인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實技專攻 學生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레퍼토리를 넓히고 대학원에서 습득한 예술을 演奏會를 통해 발표하게 하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일 것이다.

4. 聲樂專攻 卒業生들의 進路와 바람

大學 및 大學院 敎科課程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대부분은 대학 당국이나 文敎部의 노력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문교부 영역의 한계를 벗어난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즉 聲樂專攻 卒業生들의 進路 문제인 것이다.

音樂大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해서 나갈 수 있는 분야로는 교직,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연주 단체 취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립 학교 교직을 원하는 학생은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順位考査를 보아야 하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順位考査도 원하는 학생 모두가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2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사범대학을 제외한 각 학과의 정원의 30%에 한해서만 교직

과목 이수 자격을 문교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진출 가능성은 합창단이나 오페라단에 입단하는 것인데 현재 실업 합창단으로는 국립 합창단과 대우 합창단 그리고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시립 합창단이 창단되어 있을 뿐이다. 오페라 단체로는 국립 오페라단, 시립 오페라단, 서울 오페라단, 수도 오페라단 등이 있으나 이들 단체들은 공연에 출연할 때에 한하여 일정한 개런티를 지불하고 있어 직업 오페라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들 단체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卒業生의 수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악과가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직장을 구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 소득도 중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國際收支도 黑字로 돌아서게 되었다. 정부나 대기업체에서 음악 문화에 혁신적인 투자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1983년에 대우전자에서 합창단을 조직한 예는 고무적인 조짐이었으며 앞으로 다른 대기업에서도 뒤를 따라 합창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

스포츠 투자에 쏟는 노력이나 비용의 일부분만이라도 音樂에 투자하면 사회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모든 도시마다 시립 합창단이 생기고 모든 대기업체가 음악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우리 音樂徒들의 꿈만이 아닌 現實로 되길 기대할 뿐이다. *